

계란 100만개로 60억원 얻었다

◇ 취재 / 김종준 대리/기자
(jjun@poultry.or.kr)

1. 위기의 채란업 구하기

지난해부터 국내 경기 침체로 계란 소비가 저하되고 있다. 수급불균형으로 종계업, 중추업, 산란업, 사료업계, 동물약품업계가 총체적

인 불황에 휩싸이면서 몇 개 중추업자와 대형 농장들의 부도가 이어졌다.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 현재까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란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낮은 가격 형성으로 사료값과 약품값



▲지난 6일 대한양계협회와 한민족복지재단은 북한에 보낼 100만 전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서운석 (주)성파 대표, 정정애 숙명여대 총동문회장, 유동준 단미 사료협회장, 정희경 2003북한어린이돕기운동 운영위원장,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한 부도 직전 농가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병아리를 입식할 돈이 없는 농가들은 강제환우로 사육기간을 연장하였다. 한편으로는 신계 입식을 위하여 노계 도태를 하려고 해도 노계 비축 물량이 많아 노계 도태 기간이 지연되는 등 산란업 병목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란농가와 관련업계는 초 긴급 재정으로 겨우 업을 유지할 뿐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때 사료 업계가 산란업 위기 탈출을 위한 양계협회 대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를 계기로 대한양계협회 주최로 채란 농가 불황타개책을 위한 양계사료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불황타개를 위해서는 계란소비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통 의견이 있었지만 상황이 너무 긴급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적은 산란노계 도태보다는 침체된 계란소비를 증대시키고, 체화된 계란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란소비 촉진운동과 불우이웃사랑계란보내기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채란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분담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한양계협회에서는 계란소비촉진운동과 불우이웃에게 계란보내기 운동을 효율적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생산 단체, 동물약품 생산단체, 축산기자재 단체, 언론사, 농협, 산란 농가 대표로 구성된 「계란소비홍보 및 불우이웃사랑계란보내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1차 추진위원회에서는 계란가격 폭락과 노계 도태 지연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이로 인한 관련 업계를 위기를 견어내기 위해서는 3월부터 4월까지 산란업 관련 업체 및 단체에서 기금을 모금하여 국가단체,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이 미미한 불우한 단체에 계란을 지원하고, 북한에 계란을 보내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2. 북한동포에 100만 개 계란보내기

「계란소비홍보 및 불우이웃사랑계란보내기」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북한동포를 돕고 수급조절 차원에서 100만 개 계란을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 추진위원회에서 불우이웃과 북한에 계란 보내기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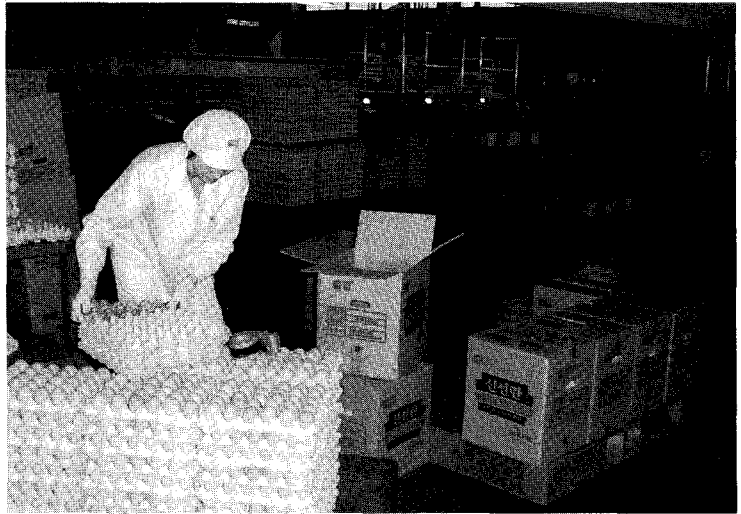
대북 사업 경험이 없는 생산자 단체로써 북한에 계란을 보낸다고 북한과 직접 접촉할 수 없었다. 더구나 선박을 이용하여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웠다.

통일부에 등록된 대북사업단체를 물색하던 중 양계협회에서 계란만 준비하면 국내 수송 및 북한에 전달까지 모든 부분을 책임 처리해 주는 한민족복지재단과 접촉하면서 사업 진행이 빨라졌다. 이어 지난 5월 6일에는 한민족복지재단측과 100만개 계란 전달식을 갖고 5월 12일에 계란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양계협회로써는 북한에 보낼 계란은 국가적인 위상과 우리나라 채란업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품질, 위생면에서 월등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대북사업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어 5월 중순 농가 구입가격 수준에서 계란 100만개를 구입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였다. 한편으로는 하루에 100만개를 작업할 만한 집하장이 없었다.

결국 작업조건과 농가 구입가격, 물류 조건을 감안하여 인천항과 가까운 농업회사법인조인(주), 서울경기양계농협, 가농바이오(주) 집하장을 선정하게 되었다.

당초 5월 14일에 북한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적으로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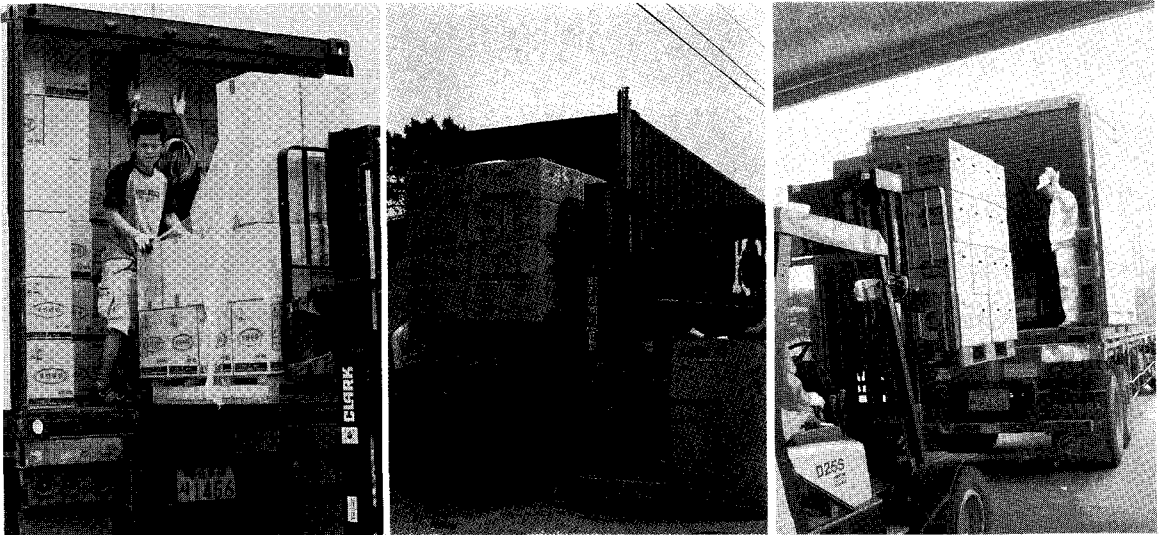
▲ 북한으로 보내질 계란을 5~6판들이 박스에 정성껏 포장하고 있다.



▲ 컨테이너 작업을 위해 창고에 대기중인 북한지원용 계란

전염이 확산되면서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의 검역강화로 대북 지연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5월 하반기로 들어서자 낮과 밤 기온차이가 13℃ 차이가 있어 계란품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당일 생산한 계란이라도 내부 온도가 30℃ 상승하는 컨테이너에서 몇 일간 신선도가 유지될지 의문이라는 소견이 나올 정도였다.



▲ 지난 19~20일 북한으로 출하될 계란이 컨테이너에 실리고 있다. <좌부터 조인(주), 서울경기양계농협, 가농바이오(주)>

이런 가운데 한민족복지재단측으로부터 북한에 지원되는 물품에 대하여 검역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5월 21일 출항 일자가 결정되었다고 통보가 왔다.

계란 수송은 컨테이너에 적재하기 때문에 외

부 기온상승에 따른 계란 신선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전 1~2일 전에 생산된 계란만을 선별하였고, 운송할 때 외부 충격을 감안하여 5~6판씩 쌓아 끈으로 묶고 종이박스로 포장하였다. 일부 업체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예행 연습까지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졌다.

19일 서울경기양계농협 북부집하장부터 컨테이너 적재가 이루어졌는데 다행히도 낮 기온이 25℃를 유지하고 바람까지 불어주어 컨테이너 내부온도 상승이 적었다. 이어서 20일 가농바이오(주)와 조인(주)에서 컨테이너 적재 작업이 이루어졌다.

컨테이너 적재는 운송시 계란박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 계란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스 사이에 나무판을 대는 치밀함도 보여주었다.

록 하고, 계란박스를 6~7단 쌓게 되므로 하중을 감안하여 나무합판을 중간에 삽입하거나 두꺼운 종이박스를 사용하였다.

20일 정오에는 기온이 25℃ 이었고,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높지 않아 컨테이너 안의 계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계란을 실은 컨테이너는 인천항으로 옮겨져 배에 선적되었고, 21일 오후 1시 100만개를 실은 배가 북한남포항으로 출발하였다.



▲ 컨테이너에 실린 계란이 집하장을 떠나고 있다.<가농바이오(주)에서 50만개가 이동되고 있다>

한민족복지재단 최윤원 팀장은 이번에 보낸 계란은 22일쯤 남포항에 도착하여 6월 1일 북한의 어린이날인 ‘국제아동절’을 맞이하여 북한 전역에 있는 유치원과 탁아소에 전달되고, 일부는 빵공장으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3. 100만개 계란의 경제적 효과

4월말 북한에 계란보내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중앙일보와 축산전문 신문 등 언론 보도 이후 상인들이 계란 구입 물량을 늘이면서 시장 흐름이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5월 6일 집하장들과 100만개 계란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란 가격이 10원 인상되었다. 또한 유통 상인들이 구매 물량을 늘이면서 난가 상승과 더불어 할인폭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100만개를 북한으로 반출한 것은 단순히 계란 구매대금 1억원 효과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산지시장 흐름상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고 쉽게 알 수 있다.

계란 100만개는 5월 20일에 3개 집하장에서 반출되었는데 계란 시장은 4월말부터 호전되었고, 난가 상승세로 노계 가격이 폭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약 60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 북한에 보내진 계란은 굶주린 북한 어린이에게 나누어 줄 빵의 원료로 공급하게 된다.

인도적인 사업을 협회에서 지원함으로써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였고, 대북 사업이 수급조절 차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한 업체들의 브랜드 계란이 처음으로(서울경기 양계농협은 두번째) 북한에 알려지게 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져 소비 홍보 효과가 있었다.

위와 같은 경제적, 대외적, 브랜드 소비홍보 효과를 모두 합한다면 돈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양계**